프롤로그

원칙을 지키는 가치 투자 훈련

투자 초보자도 투자 원칙을 제대로 지킨다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조선일보에서 발행하는 경제지면 '조선경제'와 '민트(mint)'에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워런 버핏, 하워드 막스, 켄 피셔 등이 자주 언급된다. 과연 이들의 투자 비법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이들이 소개된 기사와 관련 책을 읽어봤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국내 슈퍼개미들도 만나봤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와 국내 슈퍼개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 모두 '주가는 실적을 반영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세계대전을 겪어도, 경제공황이 와도, 코로나 팬데믹 공포가 덮친 시기에도 좋은 기업은 성장한다는 믿음. 급락했던 주가는 어느새 기업 실적을 반영해 고공행진을 한다는 믿음. 좋은 주식을 싸게 사면 수익이 난다는 믿음. 이러한 투자를 '가치 투자'라고 말한다.

슈퍼개미들의 가치 투자 원칙

주식 투자에는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투자하는 투자 전문가들이 부를 이룬 방법도 다양하다. 소위 워런 버핏식 가치 투자와 차트를 활용하는 기술적 분석 투자가 대표적이다. 어떠한 방법이 옳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가치 투자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슈퍼개미들은 초보자도 가치 투자만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주식 초보자가 따라하기 쉬운 투자 원칙을 3가지로 압축해서 소개한다.

원칙1 좋은 기업을 최대한 싸게 산다

매년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을 최대한 싸게 산다. 예컨데 PER 5배 이하, 배당수익율 5퍼센트 이상인 기업을 매수한다.

원칙2 투자 수익은 인내심이 결정한다

좋은 기업이 싸게 거래되는 시점(매수)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목표 주가에 도달할 때(매도)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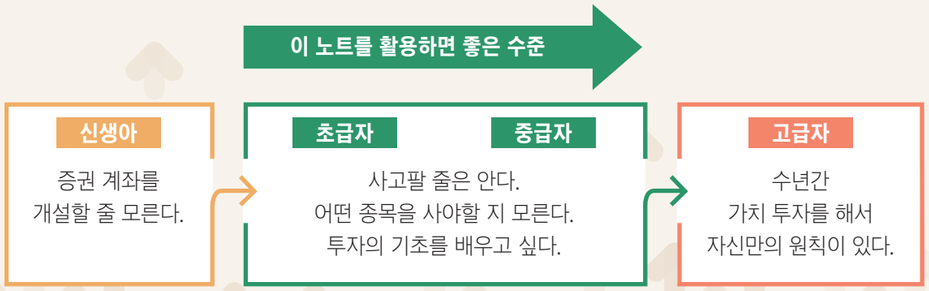
원칙3 기업분석보고서 (투자 일지)를 작성한다

선택한 기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기록한다. 신문·잡지를 읽으며 경제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인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식 노트'

조선일보에서 만든 〈따라하면 돈 버는 주식 노트〉는 주식 투자 이론서가 아닌, 실전 투자를 위한 활동지다. 투자 초보자가 투자 원칙을 몸에 익히도록 안내하는 가정교사이자 훈련서라고 할 수 있다.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직접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다.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큰소리로 읽고 말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수학 노트와 영어 노트가 따로 있듯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이 노트를 통해 투자 전문가와 슈퍼개미의 원칙을 알고 스스로 반복 훈련한다면 부의 추월차선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노트에서는 가장 먼저 투자 고수의 투자 원칙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32~38쪽에서는 이 노트의 특징인 '기업분석보고서 워크북'을 토대로 LG생활건강(051900)을 분석한 사례를 설명한다. 40~47쪽에서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알아야 할 기본 용어와 참고 사이트를 소개한다. 활동지 곳곳에는 조선일보에 실린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최신 기사가 삽입돼 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기업(종목)은 추천 기업이 아닙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과 책임입니다.